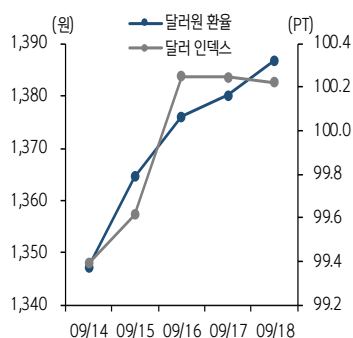


AI 속도 조절론과 미중 정상회담

FX Talk & Insight : 금주 1,375~1,405원 전망

원화 강세가 급반전되며 환율이 일제히 상승. 실물 경제의 달러 매물이 줄어들던 상황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FOMC 금리 인상 전망을 강화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징적 레벨인 5%를 돌파하면서 FOMC 이전부터 달러-원 환율이 상승 전환.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물꼬 텄지만, ECB와 BOJ 등 선진국 역시 동반해 금리 올리고 있어 달러만의 독주가 되지는 않을 듯. 24일 미-중 정상회담은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 관계 관리 이상의 결과 도출 어려운 것이 현실

외환시장



글로벌 중앙은행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계속 내려가기만 할 것 같던 달러-원 환율이 주중에 1,380원대로 올라섰다. 물론 원화 환율이 상승세로 추세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성급하지만, 적어도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역시 오류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사실 원화 환율이 달러화와 키 높이를 맞추 맞추 레벨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 서로 다른 이익을 따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사불란했던 하락에 제동이 가해질 수도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여기에 FRB를 필두로 한 선진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전환 우려와 빅 테크들의 AI 속도 조절론이 연이어 등장하며 대외 변수에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선 ECB로 시작해 BOJ로 끝난 선진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는 긴축 기조 우위로 마무리되었다. 사실 ECB와 BOJ의 금리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터라,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금리 인상으로 시장 전망이 급선회한 FOMC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었다. 불확실한 미래의 전망을 차단하고 눈에 보이는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워시 의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근래 발표된 고용과 물가의 조합상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그리 이상한 환경은 전혀 아니다. 관건은 연준이 트럼프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어느 정도까지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였다. 막상 뚜껑을 열어본 FOMC는 25bp 금리인상과 함께 점도표의 상향조정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면 연내 추가 인상도 서슴지 않겠다는 매파적인 분위기가 풍겨 나오고 있다.

한편 엔트로픽, 오픈 AI 등 미국 핵심 AI 기업들이 인류 보호를 내세워 AI 속도조절론을 주창하고 나선 점도 AI 증시 고점 및 반도체 수요 저하 우려로 이어지며 원화 환율 반등에 일조하였다. 물론 노동 생태계의 급격한 위축을 조절할 수도 있고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완충한다는 점에서 AI 속도조절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다. 정작 문제는 승자독식을 꿈꾸는 경쟁자들끼리 과연 인류애로 포장한 AI 속도조절론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있다. 다자간 게임 이론에 따르면 겉으로는 전체의 안정과 성과를 위해 협력을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배신을 하는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 어쩌면 AI 급성장기의 정점에 다가가면서 파괴적인 과잉투자로 인해 현금이 말라가자 내놓은 구호일 뿐 구속력도 현실성도 없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 붐과 버블 붕괴 역시 반복적이고 피하기 어려운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공정한 감시자가 없다면 중앙은행 정책이나 민간의 자율적인 협약도 각자의 목적과 효용을 따져서 행동하는 선택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공정하고 선량한 규제를 통해 공공의 선으로 유도하면 좋겠지만, 민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자국 이익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난 행동을 되돌아 보면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시진핑과의 미중 정상회담 역시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쇼에 불과할 뿐 미국이 얻을 것은 사실상 없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도 줄었고 AI 기술력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한결 여유롭다. 이란에 발목 잡힌 트럼프가 오히려 시진핑에게 중재를 해달라는 아쉬운 부탁을 해야할 판이다. 지금까지 기대감이 환율을 빠르게 끌어 내렸지만 이제 시장은 냉정한 현실을 조금씩 결눈질할 것 같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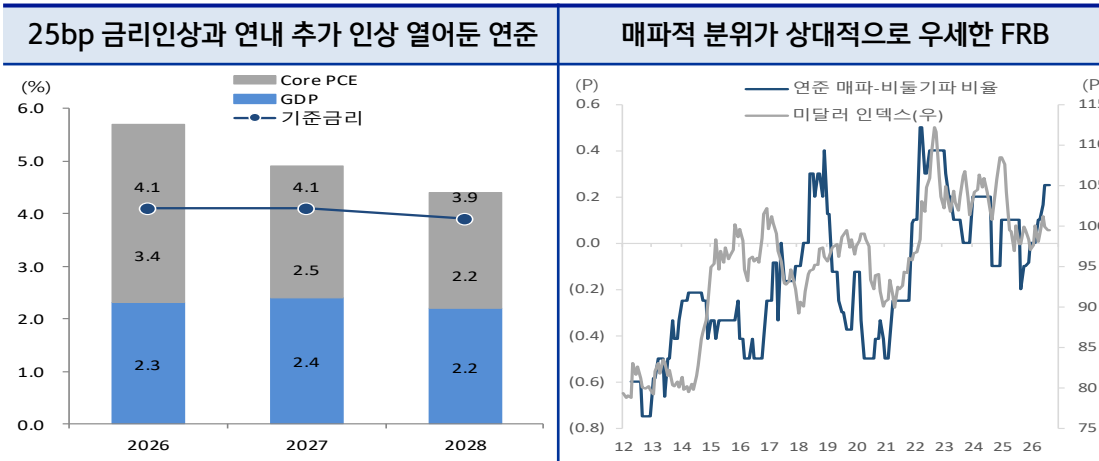
02-2151-2632

AI 속도 조절론과 미중 정상회담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고용에 이어 물가도 예상치 상회하며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9월 FOMC에서 25bp 금리인상과 함께 점도표 높아지며 추가 인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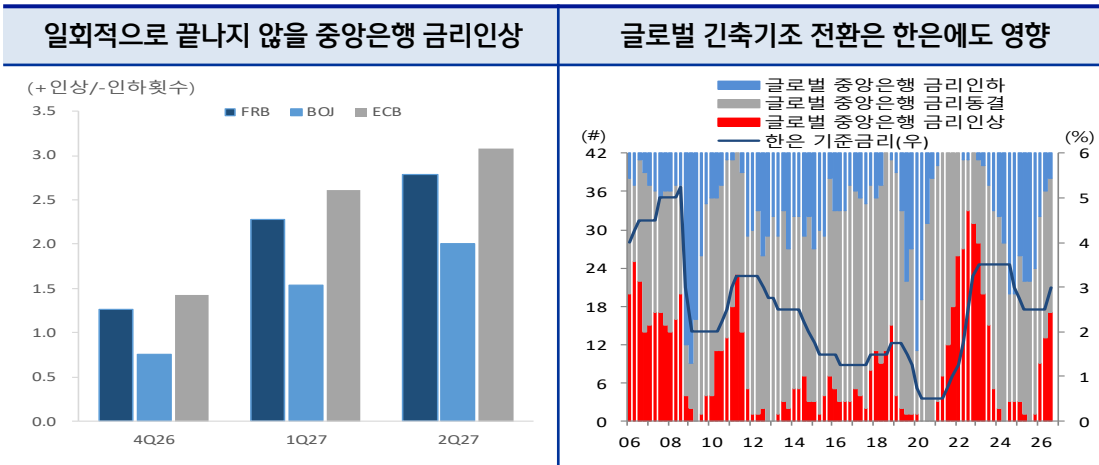
당초 워시 의장 취임으로 연준 독립
성 훼손 걱정했으나 인플레이 안정을
강조하며 우려 해소. 고유가 장기화
등으로 인해 매파 분위기 우위 형성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시장의 예상대로 ECB에 이어 BOJ
도 금리인상 기조에 합류. 글로벌 중
양은행의 긴축 전환과 함께 선진국
들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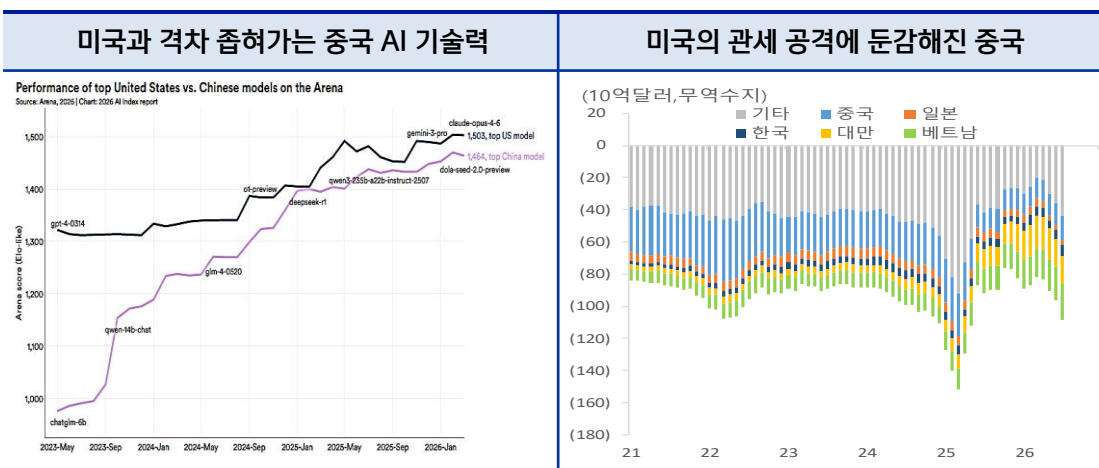
선제적인 금리인상 영향 확인하기
위한 시간 필요하지만,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라 오는 10월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듯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 높아질 듯. 관세를 비롯한 무역, AI 발전에 따른 정책 대응, 중동 전쟁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듯

중간 선거 위한 트럼프의 국면전환
카드로 여겨지나, 실속 없는 회담 될
소지. AI 기술력 및 중국의 대미 흑
자 등을 감안시 중국의 방어력 확보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AI 속도 조절론과 미중 정상회담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9-21-2026 10:00	CH	1년 대출 프라임 금리	21-Sep	3.00%	3.00%	52
9-22-2026 23:00	EC	소비자기대지수	Sep P	--	-15.5	67
9-23-2026 6:00	SK	소비자심리지수	Sep	--	104.5	61
9-23-2026 17:00	EC	S&P 글로벌 유로존 제조업 PMI	Sep P	52.3	52.7	90
9-23-2026 22:45	US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Sep P	53.6	53.9	90
9-24-2026 9:30	JN	S&P 글로벌 일본 PMI 제조업	Sep P	--	54.9	90
9-24-2026 10:30	AU	실업률	Aug	4.50%	4.50%	96
9-24-2026 17:00	GE	IFO 기업환경	Sep	89	88.8	98
9-24-2026 21:30	US	경상수지	2Q	--	-\$226.8b	73
9-24-2026 23:00	US	신규주택매매	Aug	615k	607k	88
9-25-2026 17:00	EC	M3 통화공급 전년비	Aug	--	3.40%	79
9-25-2026 21:30	US	내구재 주문	Aug P	-0.30%	1.10%	91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382.2	206.1
고가	1,390.2	207.1
저가	1,379.7	206.0
종가 ¹⁾	1,383.3	206.3
전일비	1.1	0.2
평균환율	1,383.8	206.8
NDF(1M)	1,386.7	
거래량	153(억불)	244(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386.85	6.75
JPY/KRW	884.22	-1.28
EUR/KRW	1,593.26	8.64
GBP/KRW	1,857.29	12.57
AUD/KRW	988.28	6.44
CAD/KRW	991.88	4.80
USD/JPY	156.88	0.91
EUR/USD	1.1486	0.0010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 ²⁾	전일비
1Y	3.716	-0.021	3.545	0.01
2Y	3.970	-0.018	3.600	-0.05
3Y	4.078	-0.019	3.670	-0.06
4Y	4.136	-0.016	3.685	-0.07
5Y	4.172	-0.011	3.655	-0.07
7Y	4.208	-0.010	3.690	-0.08
10Y	4.229	-0.016	3.610	-0.06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3.20	0.00
통안 1년	2.18	+0.02
통안 2년	3.98	-0.00
국고채 3년	4.03	-0.02
국고채 5년	4.22	-0.02
국고채 10년	4.46	-0.03
국고채선물(3년)	102.19	-0.10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50	15.00	3.50%
3M	-215	15.00	3.40%
6M	-540	20.00	3.46%
1Y	-1,200	10.00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 ³⁾	전일비
1Y	4.40	-0.016	4.49	0.013
2Y	4.74	0.007	4.63	0.019
3Y	4.83	0.007	4.63	0.011
5Y	4.86	-0.025	4.59	-0.012
10Y	5.00	-0.026	4.61	-0.019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6,894.23	+178.82	+2.66%
미국 DOW	51,682.64	-95.40	-0.18%
중국 상해종합	3,911.87	+36.27	+0.94%
일본 NIKKEI 225	65,018.95	+882.70	+1.38%
영국 FTSE 100	10,659.13	-157.01	-1.45%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100.30	-1.61
금 (선물)	4,390.70	+25.20
3M TERM SOFR	4.02	+0.03
3M EURIBOR	2.62	-0.01
KOR 5Y CDS	20.75	+0.10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